

■ 내일 제65회 현충일/ 학도병 문창해 할아버지의 6·25 참전 이야기

“전쟁, 생각보다 더 참혹... 매달 악몽 꾀다”

전쟁발발 당시 나이 18세 부친 4·3때 무고하게 희생 “가족들 빨갱이로 내몰려 참전하면 가족 살릴수 있어” 중학교 친구들 120여명과 해병대 3·4기로 정식 입대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있어”



문창해 할아버지가 6·25에 참전한 이유를 설명하던 중 눈물을 쏟고 있다. 이상민기자

“어머니 저 참전하구다” “무사 거기 가젠 헛시, 너는 무섭지도 않으나” “우리 가족이 살겠거든 이거 밖에 어수다.”

18세 소년은 생각했다. 가족이 살려면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밖에 없다고. 6·25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 소년의 아버지는 4·3 광풍에 휘말려 무고하게 희생됐다. 억울하게 아버지와 남편을 잃었던, 소년의 가족에겐 연좌제의 굴레까지 씌워졌다. 그런데 또다시 이념 전쟁이라니. 아군과 적군이 모호한 동족 상잔 속에 연좌제 뒤편 다시 가족들을 빨갱이로 몰게 뻔했다. “내가 군인이 되면 우리 가족들은

더 이상 빨갱이로 몰리지 않겠지요. 어떻게든 가족을 살려야 하나. 그래서 참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노인의 얼굴이 무너졌다. 님동 같은 눈물이 깊게 패인 주름을 타고 토르르 떨어졌다.

문창해 할아버지(88·제주시 웅강동)에게 6·25 참전은 피할수 없는 선택이었다. 18살 어린 나이에 군인

이 된 그는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 운명을 맡겼다.

문 할아버지는 6·25 사변이 발발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야산에서 빨갱이를 구해 집에 오던 중 우연히 만난 제주중학교 선생으로부터 전쟁 소식을 들었다. 소식을 전한 교사는 이미 피난길에 오른 터였다. 문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족 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연좌제에 걸린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도 걱정됐다. 이튿날 그는 곧장 학교로 가 문옥생 선생을 찾았다. “선생님, 언제 징집될지 모르니 우리만이라도 먼저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문 할아버지와 제주중학교 재학생 50여명은 제주도 삼양2동에 있던 빈 공회당(주민들 집회를 위해 세워진 공공건물)을 빌려 이 곳에서 합숙 훈련을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학교에서는 문 할아버지를 비롯한 재학생 120여명이 징집돼 그해 8월 30일 해병대 3·4기로 정식 입대했다.

9월 1일 꽃다운 청춘 3000여명이 제주항에 모였다. 함정을 타고 경상남도 진해 해군기지로 간 이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통영으로, 그리고 부산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전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 바로 옆에서 전우가 죽어 나갔지만 쳐다볼 겨를이 없었다. 폭탄 파편이 등에 박혀 피가 낭자하게 흘러도 다친줄을 몰랐다. 문 할아버지는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했다.

전투는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후퇴할 땐 전투에서 진 것보다 무고한 양민을 두고 떠나야하는 게 더 가슴 아팠다.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데, 그냥 두고 와야 한다니... 그게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인터뷰 도중 통통 부은 문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다. 장진호 전투에서 동상에 걸려 손톱 3개가 빠졌다고 한다. 전투가 벌어진 남립산맥은 영하 30~35℃까지 기온이 내려갔다.

부은 손가락처럼 전쟁의 상흔은 오랫동안 문 할아버지를 붙잡고 있다. 그는 매달 악몽을 꾀다. 얼마 전에도 북한군에 포위 당하는 꿈을 꿨잠자리가 맘으로 흥건히 젖었다.

전쟁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참전 용사들이 점점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 수많은 희생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겠어요? 그 희생들을 잊으면 안되지요.”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법정 구속

징역 1년6개월... 법원 “피해자 엄벌 요구, 합의도 안돼”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의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장찬수)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삭인 아내와 함께 아이의 진료를 위해 급히 병원을 가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자녀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해 실형 선고를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도 조천읍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타고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하다 이를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으로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를 제외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또 지난해 8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상민기자

“거문여 물골’ 점용허가 재연장 안돼”

서귀포시민연대 등 회견 “여가·교육장으로 활용”



‘거문여 물골’의 사적 이용 연장을 막기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나섰다.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이하 서미모)과 서귀포시민연대는 4일 오전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문여 물골’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미모와 서귀포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칼호텔은

부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구간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받아 송이양식장을 짓고, 테니스장을 만드는 등 하천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문여 물골을 원상 회복시켜 공유수면으로 조성하면 피서공간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육장·어울림 장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서귀포시는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재연장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현영종기자

고질적 병폐 가축분뇨 무단배출 언제까지...

제주시, 올 4월까지 51곳 적발... 불법행위 증가세 최근 초지에 18t 버린 축산농가·재활용업체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강화했지만 불법 반복”

제주시지역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인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경우 불법배출 후 행정의 개선 명령에 응했다 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4월 말까지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51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 6곳에 280만원, 개선권고 및 조치명령 26곳, 고발 4곳, 기타(폐쇄명령, 사

용중지 등) 15곳이다.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한 연간 행정처분이 2017년 60곳, 2018년 45곳, 2019년 67곳에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올해 크게 증가했다. 3년간 행정처분은 허가취소 4곳, 개선권고 및 조치명령 39곳, 고발 12곳, 과태료 부과 79곳·4000만원, 기타 19곳이다.

올들어 5월 중순에는 한림읍 소재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이 분뇨를 인근 초지에 무단 배출했다 적발됐다. 1500㎡의 축사에서

소 100여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각각 14t, 4t의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트랙터를 이용해 인근 초지에 버렸다 민원인 신고로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재활용업체는 2018~2019년 3차례 액비를 무단배출했다 적발됐던 적이 있고, 이번에는 부속시키지 않은 퇴비를 내다버리는 등 불법을 반복해온 업체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농가에는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고의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농가에는 허가취소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된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



지난 5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초지에 투기한 가축분뇨. 사진-제주시 제공

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용 중지, 허가취소 등 영업을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적정처리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도자치경찰단, 예래천 액비유출 관련자 입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4일 예래천 액비 유출사건과 관련 A(제주시·50대)씨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골프장 코스관리 담당인 A씨는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 여전히 적정처리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장 내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기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t을 우수관을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다.

고의로 액비를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칼슘비료+코코리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페르카 효과
 N20 60일 공급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칼슘비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코코리
 달팽이추출물: 해충 물림 퇴양의 마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팜비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옥사바실러스: 미생물 신품체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20kg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NAVER D2M 코코리 검색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감귤 · 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망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관주 (3300㎡ 당 2번 관주시 4만원 소요)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시사
곰팡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